

현장과 시각

U대회 유치 홀로 뛰는 광주



정후식

사회1부 부장

올들어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유치를 위해 전력투구해 온 광주시와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의 표정이 아연 반짝였다. 유치 신청도시 사전 답사차 6~8일 광주를 찾았던 국제대학스포츠포럼(FISU) 조지 킬리안 집행위원장이 이 광주의 여건과 경기장 시설, 유치 준비상황에 대해 호평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킬리안 위원장 일행은 대회가 유치되면 메인 스타디움으로 사용될 월드컵경기장과 영주종합체육관, 회의 장소인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을 둘러보며 가는 곳마다 '베리 굿(Very good)' '베리 베리 굿'을 연발했다.

킬리안 위원장은 "광주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라며 "특히 U대회 유치를 위한 준비가 완벽하고 시설 또한 훌륭하며 시민들의 열기와 성원도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라고도 했다.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그는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5월 항쟁 영상물을 본 뒤에는 "과연 대학생들은 뭔가 하고자 하면 반드시 해내는 사람들"이라며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제전인 하계U대회와 5·18 민중항쟁을 연관짓기도 했다.

물론 킬리안 위원장의 이같은 칭찬은 광주시와 유치위, 시민들의 극찬한 환대에 대한 의례적 표현일 수도 있다. 광주시는 그에게 '140만 시민의 이름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고, 조산대는 2003년 대구 하계U대회에 남·북한이 동시에 참가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한반도 평화유지에 기여한 공적을 기려 명예이화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도 했다.

이회백 유치위원장과 김운용 명예위원장, 집행위원장인 박광대 광주시장, 김윤석 경제부시장 등은 2박3일간 모든 일정을 제쳐놓고 이들을 직접 영접하고 안내했다.

하지만 이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인 카잔(Kazan)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푸틴의 후계자인 메드베데프 대통령 당선자는 U대회 유치 삼수(三修)에 나선 카잔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킬리안 위원장도 이를 염두에 둔 듯 "광주와 카잔이 최종 각축을 벌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초기 예산지원 외에 이렇다 할 지원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단 구성이나 사찰단 파견 등 범국가적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광주시 홀로 고군분투하는 형국이다.

국제 행사 유치는 지자체 힘만으로는 벅잡다. 개최지 결정일(5월31일)까지 불과 80여일, 현지 실사단 방문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광주시, 유치위원 유기적 협력 아래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유치 교섭과 실사 준비에 나서야 할 때다. /who@kwangju.co.kr

김용철 변호사 내일 조사

삼성특검, 전화 녹취 등 자료 제출 요청

'삼성 떡값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삼성 특별검사의 조사가 11일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용 특별검사는 김 변호사에게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짜(7일)를 피해 8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아 다음주 화요일로 소환일정을 다시 조정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8일 "김 변호사와 힘줄을 연락해 화요일에 출석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지금까지의 조사가 추상적이었던 이번 조사의 목적은 삼성 떡값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을 듣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김 변호사가 갖고 있다고 주장한 전화 녹취 등을 기록한 75쪽 분량의 삼성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또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 김 변호사가 직접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한 만큼 김 변호사를 상대로 뇌물을 전달한 구체적 일시와 장소, 금액 등에 대

한 정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떡값 의혹" 수사에 의지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 "상대방이 발뺌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거를 확보한 뒤 소환을 해야 한다"며 "소환을 하지 않는다고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했음을 시사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 "(내가) 언제 출석하는지가 아니라 수사가 본질로 가야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삼성 이 거대한 부패를 저질렀지만 정작 내가 힘들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또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주고 정의구현사제단 김인국 총무신부도 이날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할 말이 있다면 해야겠지만 검증의 자리가 돼야 하는 청문회가 공방의 자리가 될까봐 고민이다. 김 변호사가 출석한다면 그 공방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베이징 올림픽 남북 공동응원

경의선 이용 물 건너 가나

철로 보수 입장 정리도 안돼

월드컵 축구 예선 남북경기의 평양 개최가 양측 입장 차 속에 무산되면서 또 하나의 남북간 스포츠 관련 이벤트인 베이징(北京) 올림픽 공동응원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올림픽 개막(8.8)까지 약 5개월 남짓 남은 만큼 공동응원단 파견시 이용할 경의선 철도 긴급 보수 문제 등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곧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며 "3월 중에는 긴급보수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10월 정상회담 합의사항 중 하나인 올림픽 공동응원의 경우 연계된 사업인 경의선 철도 긴급 보수에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시기를 놓치면 자동 무산된다는 성격상 성사를 위해서는 속도를 내야 할 사업에 속한다. 그러나 남북은 지난 달 4일 실무접촉을 통해 응원단 규모(총 인원 600명)에 합의한 이후 1개월 이상 논의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 사업에 관심을 끄는 이유는 올림픽이라는 '시기가 확정된' 이벤트를 계기로 성사된다는 점에서 작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가장 먼저 고

려야할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이 사업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느냐가 향후 남북관계에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작년 이후 남북측과 합의한 만큼 남한 새 정부 출범에 관계없이 철도 긴급 보수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며 "북측은 이 사업을 작년 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대한 남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기회로 여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중요한 것은 남북 정부가 예산 투입이 수반되는 이 사업에 대해 어떤 식으로 입장을 정리하느냐일 것"이라며 "남측 입장만 확실해지면 긴급보수에 필요한 물리적 요인(시간)은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오는 26일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계기로 정부 입장이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올림픽 공동응원은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에 의해 '정상추진할 사업'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정부가 북핵 문제의 진전 상황과 완전히 때 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와이오밍 코커스가 열리기 전날인 지난 7일(현지 시각), 캐스퍼 시청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바마, 와이오밍 경선 압승

힐러리 제압 다시 상승세...11일 미시시피도 우세

한때 주춤하는 듯했던 미국 민주당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바람몰이'가 다시 시작됐다.

지난 4일 '미니 슈퍼 화요일' 대결에서 패배, 12차례 거침없는 연승행진에 제동이 걸렸던 오바마는 8일(이하 현지 시각) 와이오밍 코커스(당원대회)에서 힐러리에 압승, 대세론에 다시 불을 붙였다.

이로써 오바마는 힐러리와 대의원수 격차를 더 벌리며 매직 넘버(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위해 필요한 대의원수) 2천25명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됐다.

◇오바마, 민주당 경선 '끝내기 수순' 돌입하나=이날 오바마의 승리는 어느 정도 예견되긴 했지만 오바마로선 값진 승리였

다. 무엇보다도 '미니 슈퍼 화요일'에서 기자회견한 힐러리에겐 큰 타격을 주면서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는 동시에 '뒷심'을 다시 확인했다.

이번 승리로 오는 11일 미시시피 프라이머리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미시시피주(대의원 33명)는 흑인 유권자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이미 오바마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오바마가 연승할 경우 또 한 번의 중대 국면인 내달 22일 펜실베이니아주 경선에 앞서 오바마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힐러리, 펜실베이니아 경선에 '울 인' =하지만 힐러리가 쉽게 밀려나지는 않겠

다는 태세다. 힐러리 진영은 와이오밍주와 미시시피주의 경우 대의원수가 각각 12, 33명에 불과하다며 승패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다. 힐러리 진영은 오바마가 16개 주 코커스 가운데 13개에서 승리할 정도로 코커스에서 강세를 보였고, 미시시피주도 흑인 유권자가 상당수인 점 등을 강조했다.

대신 힐러리는 내달 22일 펜실베이니아주 경선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지난 4일 힐러리가 예상을 깨고 압승을 거둔 오하이오주와 인접해 있고 제반여건도 오하이오주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힐러리 진영은 '어게인 오하이오'를 기대하고 있다. 대의원도 158명으로 와이오밍과 미시시피를 합친 것보다 3배 이상이다. /연합뉴스

EU, 기후 변화 따른 이민 유입 대비해야

헤럴드 트리뷴지 경고

유럽연합(EU)이 오는 202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정치적 불안 등으로 이웃 나라들에서 밀려오는 이민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회원국들에 경고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이 8일 경고했다.

EU 이사회가 오는 13~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제출할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서 빈곤과 갈등으로 이미 고통받는 지

역을 뒤덮을 기후변화의 충격에서 자유로울 곳은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특히 유럽의 경우 기후변화의 충격에 노출돼 있는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EU 국경에서 이민 물결의 압박과 정치적 불안, 그리고 갈등이 미래에 증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압박이 영토와 물 공급을 둘러싼 더 많은 분쟁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종교적 긴장을 악화시켜 빈곤층의 과격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연합뉴스

"수치 가택연금 해제" 브라운 영국 총리 촉구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를 가택연금에서 풀어줄 것을 미얀마 군정에 촉구했다.

브라운 총리는 이날 이브라힘 감바리 유엔 특사가 수치 여사를 접견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그녀가 가택 연금 상태에서 영원히 풀려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브라운 총리는 또 수치 여사가 자유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라고 미얀마 군정에 요구했다. 수치 여사는 이날 군사정부 측의 승인을 얻어 양곤 시내에서 약 1시간30분 간 감바리 특사를 만났다. /연합뉴스

2008년 국비지원 훈련생 모집 (모집기간 : 3월 31일까지)
과정: 전자정보Technician (다기능기술자), Office automation (사무자동화)
훈련내용: 컴퓨터기초 및 활용, 정보통신망 및 전자회로 실습, 공 cable 접속 및 측정, UTP cable 접속 및 측정, 정보통신 실무(1개월 현장실습)
자격증: 정보통신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통신신로 기사, 정보기기 운용 기사
현대직업전문학교 (광주 동부경찰서 앞 ☎ 062) 224-4560

7·9급 공무원
정규이론A반 모집 개강 3월 3일
문제풀이반 5주 완성
www.mdgosi.co.kr ☎ 222-4560

www.hanbitgosi.co.kr = 2008년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7급 공무원 합격특강
9급 문제풀이반 (1개월완성) 개강 4월 1일
9급 이론출수반 (2개월완성) 전직종 첫진도
한빛공무원학원 (062) 252-0252

영어교사 양성과정 입학생모집
영어교사 23000명 내년부터 채용!
TESOL
www.tesolamerica.com
www.tesol.tv
cafe.daum.net/job05
062-227-4268
062-222-6253
고졸자/전대졸은 별도 상담